논어 12편 안연 13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聽訟，吾猶人也；必也使無訟乎！」

독음 · 자왈 청송 오유인야 필야사무송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능력보다 애초에 송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聽 들을 청 청 / 訟 송사할 송 송

吾 자기 오 오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人 사람 인 / 也 어조사 야

必 반드시 필 필 / 使 하여금 사 사 / 無 없을 무 무 / 乎 어조사 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